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지금이 최적이다

학승이 물었다.  
“즉금(卽今)을 없애버렸을 때는 무엇이 적합할 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즉금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물어보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적합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말했어. 물어보지 말라고.”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커서 바깥이 없고, 작아서 안이 없다.”

問 盡卻今時 如何是的的處 師云 盡卻今時莫問那箇 云 如何是 師云 向你道莫 云如何得見 師云 大無外 小無內

가장 적합할 때는 지금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최적의 시간이다. 매순간이 모이던 평생이 된다. 매순간 행복하면 평생 행복하다. 지금을 벗어나서 최적의 시점이 언제이겠는가?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것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크다고 말하자면 얼마나 큰지 가히 바깥을 볼 수 없고, 작다고 말하자면 너무 작아서 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볼 수 없다는 뜻

이다.  
지금같이 생생하고 분명한 때 만물의 근원을 즉시 깨달아야 한다. 24시중에 움직이고 말할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밤 때를 아는 것과 같다.

학승이 물었다.  
“4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  
학승이 물었다.  
“그것은 화상의 경계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물론 그렇지.”  
학승이 말했다.  
“제발 지시하여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4구 백비를 여의고 무엇을 가지고 지시하라는 것인가.”

問 離四句絕百非時如何 師云 老僧不認得死 云者箇是 和尚分上事 師云恰是 云請和尚指示 師云 離四句絕百非 把什麼指示

4구 백비를 ‘유무 세계’ 일체를 끊어내는 것이다. 일체를 끊어야 가히 조금 도를 이해하는 정도가 된다. 조주 선사는 4구 백비를 끊어낸 세계는 마치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설명할 때는 사구 백비를 여의고 도대체 무엇으로 말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도나 진실의 세계는 헤아림으로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알 수 없다. 그곳은 모든 것을 여인 자리이다. 그렇지만 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체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화상의 가풍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안으로는 한 물건도 없고 밖으로는 아무 것도 구할 것이 없다.”

問 如何是和尚家風 師云 內無一物外無所求

마음 안에 단 한 경계도 두지 않고 마음 밖에도 단 한 경계도 두지 않는 것이 선사들의 경계이다. 내외가 맑고 분명하다. 이것은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성품은 원래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러한 줄 깨달으면 즉시 체득된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존자여, 그대는 무슨 목적으로 출가하였습니까

(미린다평화)

역시 그는 서양인처럼 된 것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도, 이렇게 솔직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처음 만나는 스님에게, “스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출가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말일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당황하고 조금은 결례가 되는 일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 미린다왕은 결례가 되는 일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나가세나 존자는 그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추측을 할 뿐이다.

그러나 미린다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비수(匕首)같은 질문을 해댄다. 진검승부다. 나가세나 존자가 대론의 주제로서, “진리에 관해서 대론하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말을 꺼내자 마자, 바로 공격해 들어간다. 존자는 지금 출가자의 신분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물음이다.

나가세나 존자는 1차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나선다. “우리가 출가한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고, 다시는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속에 대한 집착이 없고, 완전히 해탈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정답이다. 하지만,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닌가.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고 만다. 그러한 일반론은 차치하고, 당신 자신의 출가 동기나 출가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그러한 모범답안으로 말해도 좋을 만큼, 당신의 출가는 몇 몇하고도 당당했던 것인가? 지금 미린다왕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다.

미린다왕이 2차 공격을 시도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존자여, 비구들 모두가 그와 같은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출가했습니까?” 말은 ‘비구들 모두’라고 하지만, 당신 역시 그와 같은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출가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 스님들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 여전히 교과서적인 대답만 반복하실까? 아니면 좀더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실까?

나가세나 존자의 대답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에 말이다. “대왕이여,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출가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폭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둑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의 수단으로 출가했습니다.” 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서 출가했다. 는 고백까지 나왔다. 그런 스님들도 없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우리 같은 어떨까? 이 정도 대답이라면, 이제 물러설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듣고서도 다시금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너무 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린다왕은 물러서지 않는다. 2차 답변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여전히 나가세나 존자는 그 자신의 목적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

마지막 3차 공격이다. 보다 중심을 향해서 비수를 찌러댄다. “존자여, 그대는 무슨 목적으로 출가하였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제기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



그림 · 박구원

다. 그러나, 진심직설(眞心直說)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거듭거듭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번 더 쏘아 들어간다.

그렇게, 그 정도로 그대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나 역시도 좀더 내려가서 그대 곁에 서리라, 라는 심정이 있을까. 존자는 드디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한다. 고백한다. “실은 나는 어려서 출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몰랐습니다.”

보라! 이 스님을 ---, 여기 자기를 말하는 분이 있다. 자기를 드러내놓는 분이 있다. 출가자의 웃음으로 그 스스로를 덮지 않으시고, 적나라하게, 그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그래, 나 여기 다 벗었다. 이제 나를 보라. 그렇게 그는 가장 힘없이 대답하셨으나, 가장 힘있는 대답을 하시고 있다. 우린 이렇게 무장을 완전히 해제한 채, 우리 스스로를 낮게 낮게 낮출 수 있을까.

(서경수 옮김, 『미린다평화』, 동국역경원, 53-54쪽)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27

### 사법인-② 일체개고

### 변화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므로 ‘쁨’

일체개고(一切皆苦)는 일체행고(一切行苦), 제행개고(諸行皆苦)라고도 하는 데, 이는 오온·십이처·십팔계 등의 모든 현상법이 ‘고(苦)’라는 의미이다. 이 내용은 원시경전을 비롯한 그 밖의 많은 불교경전에서 ‘현상법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다’라는 가르침에 기인한다.

하지만 일체개고가 객관적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물론 불자사이에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고 납득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고라고 하는 일체개고의 명제는 무조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실 속에 살아가다보면 고만이 아니라 낙(樂)도 있고, 고도 낙도 아닌 상태, 즉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의 상태에 머무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라의 감정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사물을 대해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전혀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상의 모든 것을 고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일체개고는 객관적 진리일까? 앞서 연재한 사성제의 고제(苦諦)에서 사고팔고(四苦八苦)에 관해 이미 언급했지만, 이밖에도 고에는 고고(苦苦)·괴고(壞苦)·행고(行苦)의 삼고(三苦)가 있다. 그렇다고 사고팔고와 삼

고가 다른 종류의 고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 개념에 있어서 중심은 역시 사고팔고에 있다. 삼고는 부처님이 사고팔고의 의미를 세 종류로 다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삼고에서 고고란 몸이 타격이 가해져 느껴지는 고통이나 추위와 더위 등의 환경에 의한 고통을 말한다. 즉 육체의 신경에 가해지는 고통으로 생물이라면 인간도 동물도 다름없이 느끼는 객관적인 고이다. 하지만 고고를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체개고라고 말할 수 없다.

### 쁨을 관하면 樂도 쁨을 달고 다닌다 깨달음 얻은 사람에게 현상은 쁨 아니다

다음으로 괴고는 파괴손실 등에 의해 느껴지는 고이다. 가난하거나 노쇠하거나 실망낙담할 때 받는 정신적인 고이다. 이는 사물이 쇠퇴해 사라지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쇠퇴하여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번영하여 발전하는 것도 있다. 역경의 고도 있다면 순경(順境)의 낙도 있다. 따라서 세상에 괴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일체개고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고는 이 세상이 변화해 가는 현상을 보고

느끼는 고통 말한다. 이는 단지 현상세계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사고에 입각한 삼계육도(三界六道)로의 윤회전생하는 삶도 포함된다. 즉 윤회를 포함한 모든 삶의 변화를 보고 느끼는 고통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미망 속에 살아가는 범부 중생의 삶을 말하기도 한다. 미망의 삶은 고이며, 불교에서는 미망을 떠나 윤회를 벗어난 열반의 상태만이 진정한 낙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모든 현상이 고라고 하는 것은 미망에 빠진 범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 현상은 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째서 모든 것은 ‘고’라는 가르침의 일체개고를 설했을까?

고고·괴고·행고의 삼고이든, 사고팔고의 고이든 이 모든 것은 무상 속에 속해있는 고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나에게 육체적 고통이 없으니 고고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개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간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 나에게 병이 찾아와 고고의 상태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삼고와 사고팔고를 관(觀)하게 되면, 결국 낙(樂)이라는 것도 그림자처럼 항상 고통 달고 다니는 현상이 불과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일체개고를 설했신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本지기사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術師

파워덱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빠-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 마이크 V-620

•무선 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은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이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